

3 사진으로 보는 북한 바다의 풍경



The Forgotten Other Seas, the Seas of North Korea

잊힌 바다
또 하나의 바다
북한의 바다

4 분단의 바다, 갈라진 바다

북녘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살고 있던 사람들은 6.25 전쟁 중 흥남철수, 해주철수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해안 곳곳에서 새롭게 삶의 터전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의
기억



관람 시간

평일	09:00 - 18:00
토요일 5월 - 8월	09:00 - 21:00
9월 - 4월	09:00 - 19:00
일요일, 공휴일	09:00 - 19:00
설날, 추석 익일, 어린이날, 광복절	09:00 - 21: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

관람료: 무료

2019.
07.23.
TUE.
10.13.
SUN

/ 후원 해양수산부·통일부·국회해양문화포럼
장소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

‘북한의 바다’를 만납니다

북한의 바다. 우리와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가보지 못한 바다’, 기억 속에서 점점 ‘잊힌 바다’가 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ONE WORLD, ONE OCEAN’을 노래하는 시대, 이번 전시는 그동안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진 북한의 바다를 보여드립니다.

북한의 바다는 지리적으로 해양에서 대륙으로 향하는 교차점이자 환동해·환서해 문명의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DMZ라는 군사분계선으로 인해 동해와 서해가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바다를 통해 이동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과거의 북한 바다는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획전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교과서를 써 나가듯 차근차근 과거 역사에서 오늘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친절하게 접근합니다.

‘잊힌 바다’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의 바다’, ‘통일의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북한 바다 사람들의 삶과 문화

—
근대부터
오늘까지

북한은 열악한 수산 기술로 인해 상대적으로 남한의 바다에 비해 수산자원이 아직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산자원이 한때 남한으로 대거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북한 수산물의 남한 반출은 거리가 가깝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남한의 수산업계는 북한의 수산자원에 여러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업 관련 포스터



청진항 정어리 수송 사진첩서

1 기록과 유물로 남겨진 북한 바다

—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북쪽 해안지역에는 선사시대부터 바다를 이용해 교류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해상활동이 활발했던 고려시대에는 황비창천경을 비롯한 고려동경과 난파선 유물, 기록 등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함경도 해안지도첩

깊은 바리모양 그릇